

평균빚 4600만원...부채 덮에 걸린 청년들

지난해 광주청년드림은행 상담 424명...3명 중 1명 무직·일용직 대출 이유는 생활비 72%·부채 상환 24%·대학 등록금 21% 등

빚 부담을 견디기 힘든 광주지역 청년 3명 중 1명은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년은 평균 4600만원가량 빚을 지니고 있었는데, 4명 중 1명꼴(24%)로는 이미 가진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광주시 청년 정책 기관인 광주청년드림은행(청년은행)이 지난해 상담을 진행한 424명의 부채 유형을 분석한 자료에 담겼다.

광주청년드림은행은 지난해 상담을 신청한 774명 가운데 상담을 완료한 424명의 특성과 부채 성격, 자산 규모 등을 분석했다.

지난해 상담을 받은 424명 가운데 여성은 229

명, 남성은 195명으로 각각 54%, 46% 비중을 차지했다.

사회 초년생인 25-29세가 40%(170명) 비중으로 가장 컸고, 30-34세 29%(125명), 20-24세 17%(71명), 35-39세 12%(51명), 40세 이상 2%(7명) 등 순이었다. 5명 중 2명꼴(38%·163명)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대학원 이상 학력도 4%(16명) 있었다.

상담을 받은 이들의 14%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청년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21%(88명)는 직업이 없거나 10%(44명)는 일용직과 아르바

이트, 공공근로를 전전하며 빚을 갚기 힘든 상황에 부딪쳐있었다.

전체의 28%(119명)는 일하고 있지 않았고, 정규직 34%, 비정규직 24%, 프리랜서(자유 계약자) 11%, 자영업자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을 보면 52%(220명)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1인 가구는 38%(160명)로 나타났다. 지인과 동거(7%)하거나 공동 주거(1%) 가구 형태도 있었다.

상담자들이 지닌 평균 부채는 약 457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년은행이 지난 2021년 45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평균 부채 2910만원보다 57.0%(1660만원) 증가한 규모다.

부채가 있는 상담자들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 부채는 4950만원(2021년 3180만원)으로 늘어난다.

빚이 있는 상담자들의 부채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담보대출 평균 금액이 52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대출 평균 금액이 221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학자금 대출 720만원, 신용카드 640만원, 마이너스 통장 46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받은 목적을 물어보니 생활비 마련 72%(306명·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 부채(이자) 상환 목적은 24%, 대학 등록금 마련 21%, 보증금 16%, 차량 구입 12% 등 이유도 있었다.

지난해 청년은행을 찾은 청년들의 평균 부채는 4000만원을 훌쩍 넘었지만, 평균 자산은 2710만원(자산이 있는 경우 3320만원)에 머물렀다.

청년은행 상담자들의 금융자산 평균은 130만원 정도였으며, 보증금 등 부동산 자산 평균은 1100만원이었다.

최근 2년 동안 청년은행 상담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20.3%(148만원→178만원) 증가했지만, 평균 지출은 47.2%(161만원→237만원) 뛰었다.

지난해 상담자 10명 중 1명(10%·42명)은 대출 상환이 쉽지 않아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 상태가 위험한 신용 유의자는 11% 비중을 달했고,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을 거친 이는 4%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등 신용 외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21%·89명)와 가족 문제(20.5%), 통신요금 연체(17%), 심리적 문제(16.7%), 불법금융 피해(13.0%), 주거(12.0%) 등 이유로 상담을 요청했다.

주세연 광주청년드림은행 센터장은 "올해 상반기 경기가 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와 청년 부채 등 경제적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은행은 만 19-39세 청년에게 무료로 재무상담을 해주고 있으니 주저하지 않고 상담받으러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향사랑 나눔 에코(ECO)하게 지난 31일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산·왼쪽 3번째) 임직원들이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에서 1일부터 추진하는 '고향사랑 나눔은 에코(ECO)하게' 캠페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광주지역 농협 임직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다회용기를 쓰는 등 ESG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광공업 생산’ 전남 마이너스·광주 증가폭 축소

광주·전남 경기 하반기 급속 둔화

대표적인 생산 지표의 하나인 광공업생산지수가 지난해 전남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광주는 전년 증가 폭보다 축소됐다.

지난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남보다 광주는 2.6% 증가하고, 전남은 0.8% 감소했다.

광공업생산지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시·도는 대전(-5.3%)과 경북(-3.6%), 서울(-3.2%), 충남(-2.0%), 전남(-0.8%) 등 5곳뿐이다.

전남은 지난 2021년 광공업생산지수가 전년보다 8.9%나 증가했지만, 지난해 감소로 전환했다. 광주는 지난 2021년 증가율(7.9%)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지역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주춤 건 전기장비 제조업(광주)과 금속가공·화학물질 제조업(전남) 등 생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광주에서 생산액이 줄어든 산업은 전기장비 제조

업(-15.8%)과 목재·나무제품 제조업(-15.5%), 인쇄·기록 매체 복제업(-13.7%),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12.9%)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 주력 산업인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생산액은 1년 전보다 8.7% 증가했고, 섬유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은 각각 46.8%, 22.5% 늘었다.

전남에서는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생산액이 100% 감소했고, 금속가공제품 제조업(-17.0%)과 석탄·원유·천연가스 광업(-16.4%), 비금속광물 광업(-15.7%), 화학물질·제품 제조업(-5.4%)도 줄었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21.3%)과 섬유제품 제조업(8.9%), 전기업·가스업(8.0%)은 생산이 늘었다.

광주·전남 경기는 하반기부터 급속히 둔화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 광주 광공업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1.4% 감소하며 1-3분기 이어졌던 증가세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전남은 3분기(-2.6%)와 4분기(-9.0%)에 걸쳐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20조 바라카 넘는 튀르키예 원전수주 노린다

튀르키예 정부에 제안서 제출 원전 4기 건설 프로젝트 추진 중

한국전력이 튀르키예 정부에 현지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한전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해외 제2원전 수주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 30일 방문 중인 튀르키예에서 파티즈 뒤메즈 에너지지원자원부

장관을 만나 튀르키예 원전 사업과 관련한 예비제안서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절차 등을 논의했다.

한전과 튀르키예 정부는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1400MW(메가와트) 규모의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사업 규모는 2009년 수주에 성공한 UAE 바라카 원전 수주액(약 20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튀르키예 정부는 지난달 한전에 예비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한전은 한국의 원전 건설 역량과 튀르키예 원전 사업구도, 건설 공기 등

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

정 사장은 "한국의 APR1400은 한전이 최초로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10기가 안정적으로 건설·운영되고 있어 기술력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최근 서방에서 건설 중 7인 최신 원전 중 주어진 예산과 공기를 맞추며 고객 신뢰를 얻은 사업자는 한전뿐"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이번 예비제안서 제출을 계기로 튀르키예에 신규 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교육원, 농수식품 홈쇼핑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다음달 13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식품유통교육원이 농식품 업체가 TV 홈쇼핑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강좌를 진행한다.

농수산물식품유통교육원은 NS홈쇼핑과 협력해 '농수식품 홈쇼핑 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교육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월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

이 과정은 농수산물식품 분야 제조·생산·유통업체 중 홈쇼핑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50개 중소기업체의 역량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비를 지원하고 먼 거리 교육생의 경우 숙박 시설을 제공한다. 홈쇼핑 입점 조건을 갖춘 우수 수료생은 기획전 입점 연계와 NS홈쇼핑 후속 상담 등 특전이 주어진다.

이번 모집에서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수산물식품유통교육원 누리집(edu.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